

문 의	대변인실	대변인 박용주 042-481-5027 사무관 이승윤 042-481-5272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20년 3월 16일(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Young특허지! 독특허지! 氣특허지! 특허청,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간다

- 과학교사, 청년창업가, 학생... 국민소통 지원 나서 -
- 유튜브로 안내교육, 질문은 댓글로 소통은 답글로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'2020년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'이 16일 오전 10시 유튜브로 진행된 안내교육(오리엔테이션)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-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과학교사, 청년창업가,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허, 상표, 디자인 등 지식재산 이슈와 정책현장을 취재하여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한다.
- 또, 올해 정책기자단은 ▲젊은 시각으로, Young특허지! ▲창의적인 취재를 통하여, 독특허지! ▲지식재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의미에서, 氣특허지! 라는 활동개념으로 운영된다.
- 유튜브 안내교육을 마친 현직 과학교사 이정걸 기자는 "지난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는데, 작성한 기사가 국민 관심을 받을 때 보람이 컸고, 지재권의 중요성도 느꼈다"고 하면서 "올해도 지식재산

현장을 열심히 취재해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쓰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○ 지난해는 정책기자 20명이 활동해, 240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게재했으며, 그중 24건은 네이버 테크판에 실려 5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.

○ 특히, ▲첨단기술, 숨겨야 하는 비밀(12.10) ▲반박할 수 없는 여름 발명품(8.21) ▲플라스틱을 대체할 특허상품 뭐가 있을까?(6.27) 등은 방문자 3만 명이상이 열독한 우수 기사다.

□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실시한 비대면 안내교육 영상은 ▲취재지원계획 ▲기사송고 방법 ▲저작권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.

○ 한편, 유튜브 안내교육을 접한 네티즌들은 ‘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, 빨리 만나기 바란다’, ‘내년엔 나도 지원해 보겠다’, ‘의미있는 활동 기대할게요’ 등의 댓글을 남겼다.

□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“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지식재산 정책기자단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변인실 이승윤 사무관(042-481-52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 사진 및 설명

16일 오전 김예진(UNIST 수리공학과 2학년) 학생이 부산시 화명동 자택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안내교육을 받고 있다.

